

여기 붙어라

제안서

문제상황

친구라도 취미나 취향은 다릅니다. 각자 생활에 따라 시간을 맞추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동호회를 찾아봅니다. 카페, SNS그룹 등 활성화된 곳을 찾아서 가입해 정모 공지를 찾아보고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조깅을 하거나, 주말에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여럿이 캐치볼을 하고싶을 때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 하고 싶지만 혼자하기에는 심심할 때, 혹은 반드시 둘 이상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활동의 특성상 모임을 찾기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 알맞는 모임을 찾아도 모임 장소가 멀다면, 그리고 먼 거리를 가서 할 만한 활동은 아니라면(조깅을 하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나간다면 어불성설이겠죠?)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 붙어라~!!

‘숨바꼭질 할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어릴적 놀이터에서 한번 쯤 외쳐본 말입니다.같은 놀이를 할 친구를 모으는 외침이죠. 이를 웹 서비스로 적용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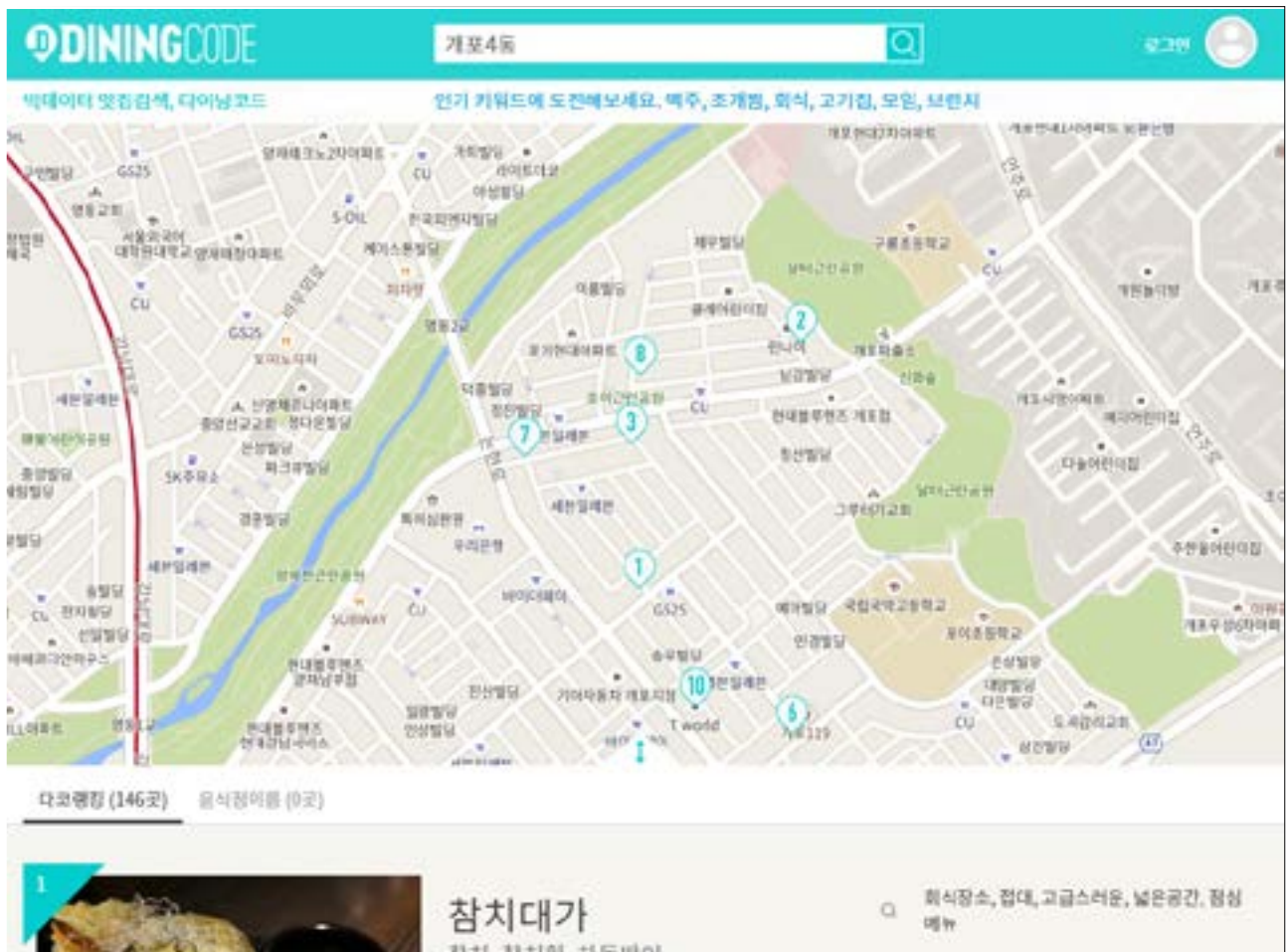
- 주거지역을 및 탐색 반경을 설정합니다.(동 단위 혹은 반경 몇m)
- 업지를(플래그) 세웁니다.(활동, 인원, 장소, 시간 입력)
- 반경 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 푸시알림을 보내기 위해선 자신도 푸시알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선 주거지역을 설정합니다. 직장이나 다른 지역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사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변 사람들을 연결 시켜줄 중요한 고리입니다.

- 검색으로 주변 활동을 필터링하여 둘러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카테고리에 알맞는 아이콘으로 지도 UI 제공
- 기한이 지난 활동은 사라집니다.(연장 가능)

반드시 플래그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훑어 보듯 동네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타임라인 형식이 아니라 지도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도위에 떠있는 아이콘을 보고 무슨활동을 하는지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클릭 합니다.

구글맵과 fontawesome 아이콘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UI

다이닝 코드의 소모임 버전을 떠올리면 명확 합니다. 지도에 마킹을 누르면 밑에서 상세설명이 슬라이드업됩니다. 참여하고 싶다면 거기서 참여 버튼을 눌러 참여합니다.

관련자료

구글맵 docs

<https://developers.google.com/maps/documentation/javascript/>